

## Contents

권두언	1
논문발표회 및 학술대회 소식	2
수상소식	3
학회지 발간	3
신간소개	5
공지사항	12
회비납부	12

발행일	2017. 12. 31
발행처	한국러시아문학회
발행인	이규환

## 권두언

한국러시아문학회 회원 여러분, 2018 무술년을 맞아 큰 절 드립니다.

지난 2017년은 국내에서는 촛불시위에 이은 헌정 사항 최초의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가 이뤄진 정치적 격동의 한 해였습니다. 여기 저기 들리던 적폐 청산이라는 다소 살벌한 구호가 이젠 어느덧 귀에 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서 상범 (부산외대)

은 국내 정세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가혹했던 볼셰비키 시월 혁명의 100주년이었습니다. 또한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어 유럽의 신세기를 연 종교개혁의 50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반복되는 ~17년은 참으로 격동의 시간인가 봅니다. 그러나 2017년은 우리에게는 격동의 시간에 대한 재조명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회를 비롯하여 러시아 관련 학회들은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과 러시아 인문학의 긴장관계, 러시아 인문학에 투영된 러시아 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한 러시아 인문학의 적극적 소극적 대응을 차분하게 다시 조명하면서 러시아 혁명의 현재성을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격동과 재조명의 한 해를 뒤로 하고 새해를 맞습니다. 2018년과 함께 우리 학회의 나이가 이제 30세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홀로 세상으로 나간다는 이립(而立)입니다. 우리 학회에게 '이립'은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학회 회장을 맡게 된 제가 아직은 막연하게나마 떠올려보는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우리 학회가 제각기 다른 경험과 제각기 다른 관심분야와 제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터놓고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회의 구성원들은 주로 러시아 인문학과 관련한 전문가들인데, 혹자는 대학에, 혹자는 연구소에, 또 혹자는 러시아 관련 업체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연마하고 활용하고 확장하면서 생활하는 각자의 공간, 그 공간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그와는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른 회원들의 다양한 격려와 의견을 들으면서 더 좋은 생각으로 가다듬고 더 나은 전문가로서 살아갈 힘을 얻어갈 수 있는 곳, 우리 학회가 바로 그런 곳이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우리 학회가 '이립'을 맞이하는 만큼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회를 위해 애쓰신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현역에 계신 분들도, 또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회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기억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학술발표라는 형식을 벗어나서 시공간을 넘나드는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모습, 그런 훈훈한 모습도 떠올려 봅니다.

‘이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리는 우리 학회의 모습이 ‘홀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다른 러시아 관련 학술단체들과 더 많은 교류를 통해 교감을 좀 더 나누면서 인문학의 과거와 현재를 함께 조명하고, 또 인문

학의 힘을 확장해나가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 그것이 제가 어렵듯이 떠올려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회원님들께서 떠올려보는 우리 학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 논문발표회/학술대회 소식

▶ 10월 14일에 제7차 러시아학 관련 국내 4개 학회 공동학술대회가 중앙대학교 흑석캠퍼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열정과 좌절의 시간들에 대한 회상>이라는 주제로 문학, 어학, 문화, 통번역 분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지난 12월 9일에는 제81차 정례학술논문발표회가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문화 분과에서는 오원교 회원(경기대)의 <현대 러시아의 대중 의식을 통해 본 10월 혁명>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상범 회원(부산외대)이 사회를, 양승조 회원(서울대)이 토론을 맡아주셨습니다. 어학 분과에서는 김정일 회원(경북대)이 사회를 맡아주셨으며, 안병팔 회원(서경대)과 김희연 회원(안양대)이 각각 <러시아어 부동사 구

문에서 시순의 상 및 어순과의 상관성 연구 - 러시아어판 현대인의 성경 사도행전 텍스트를 중심으로>, <신체어 관용적 단위의 의미 분류 및 대조>를 주제로 발표해주셨습니다. 토론은 홍택규 회원(한림대)과 길윤미 회원(경북대)이 맡아주셨습니다. 논문 발표에 이어서 조주관 회원(연세대)의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선임을 기념하는 도스토예프스키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문석우 회원(조선대)의 정년퇴임을 맞아 감사패와 기념논문집 증정식이 거행되었습니다.



## 학회지 발간

▶ 8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8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언어학, 문화 분야의 논문 10편이 수록되었습니다. 혁명 관련 논문으로 조규연 회원(단국대)의 [마야코프스키와 러시아 미래주의: 혁명의 예술, 예술의 혁명]이, 문학 분야에는 김연경 회원(서울대)의 [도스토예프스키와 이상: 자의식, 권태, 분열]을 비롯한 논문 5편이, 언어학 분야에는 김윤미 회원(경북대)의 [правда와 истина를 통해서 본 러시아적 진의 가치] 외 1편이, 문화 분야에는 권정임 회원(선문대)의 [러시아 거부들의 기부행위의 근원: 19세기 후반 러시아 상인계층의 심리학] 외 1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11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59집이 발간되었으며, 문학, 문화, 언어학 분야의 논문 9편이 게재되었습니다. 문학 분야에는 문석우 회원(조선대)의 [체홉 작품에서 음식과 욕망을 비롯한 논문 3편이, 문화 분야에는 최병근 회원(안양

대)의 [러시아 민중 유토피아의 시공간성: 키테즈와 벨로보지에 전설을 중심으로] 외 1편이, 언어학 분야에서는 김나영 회원(경북대)의 [의료 통역의 특수성: 러시아어 통역의 중심으로] 외 3편이 수록되었습니다.

▶ 2018년 2월 25일에 『러시아어문학연구논집』 제60집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 도착 예정일이 경과했음에도 학회지를 수령하지 못하신 회원은 편집부로 연락주시면 재발송해 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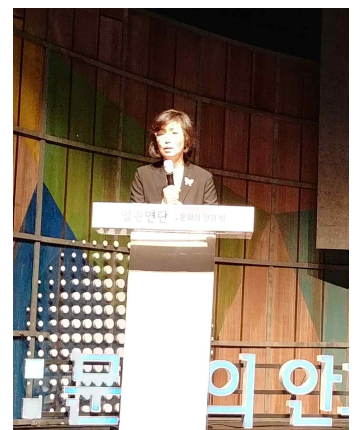
\*\* 학회비를 미납하여 학회지를 우송받지 못한 회원께서는 미납된 학회비를 납부하시고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지에 변동이 있는 회원께서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karusist@naver.com)

## 회원동정

▶ 김규중 회원(경북대)이 2017년 11월 20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동서고전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케이무크 (K-MOOC)를 개설합니다. 동서양 문명의 발생과 교류를 숙지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동양의 고전 <논어>, <도덕경>, <장자>, <벽암록> 등과 19-20세기 서양의 고전 <영웅의 역사>와 <대중의 반역> 등을 읽고 사유함으로써 21세기 세계인식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난 10월 28일에 석영중 회원(고려대)이 ‘톨스토이, 문명과 인간’이라는 주제로 네이버 열린연단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다. 이번 강연은 열린연단에서 기획한 네 번째 강연 시리즈 ‘패러다임의 지속과 갱신’의 문학 부문 강좌로서 톨스토이의 작품들을 통해 문명과 자연, 인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기사가 11월 6일 교수신문에 실렸습니다.



▶ 9월 15일 연세대 백양누리 머레이 홀에서 조주관 회원(연세대)이 “러시아문학을 통해 본 러시아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의학술원 회원 가입을 기념하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토론자로 이지연(한국외대), 우준모(선문대), 엄구호(한양대)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 조주관 회원(연세대)은 조지아 시인 쇼타 루스타벨리 850주년을 기념하여 10월 26일에 개최된 ‘조지아 시의 밤’에 40여명의 교수들을 초청하여 UCC를 통해 쇼타 루스타벨리를 소개한 후 조지아 음식과 와인을 나누었습니다.

▶ 한국러시아문학회 제14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이규환 회원(대구대)이 2018년 3월부터 2년 간 대구대학교 인문교양대학 학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 신간소개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12월 29일까지 출간된 책을 인터넷 교보문고 및 출판사 제공 서평과 함께 올립니다.)



### 1. 『예술이 꿈꾼 러시아혁명』 (한국러시아문학회 엮음, 한길사, 2017년 12월 8일 출간)

러시아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한국러시아문학회 소속 학자 20인이 쓴 책으로, 러시아혁명을 산 작가와 시인, 건축가와 화가, 음악가 등의 삶과 창작세계를 풀어냈다. 또한 사회주의 리얼리즘, 러시아 아방가르드, 혁명발레 등 러시아혁명이 낳은 여러 이론과 유산을 소개했다. 러시아혁명 이후 각 예술가나 예술사조, 이론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달라졌으며, 현대에는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까지 소개해 연속적인 맥락에서 러시아혁명기 예술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역사적 또는 정치·사회적 맥락에서만 다뤄진 러시아혁명을 예술의 맥락에서 입체적으로 조망하였다. 당시 시대상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사진을 실었으며, 러시아혁명의 주요 사건과 인물들을 정리한 연대표를 넣어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그로이스의 이 저서는 오늘날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이는 유토피아로서의 공산주의를 사고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마련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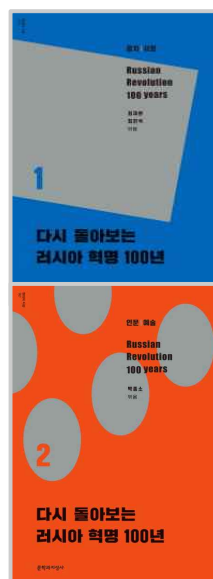
### 3. 『도스토옙스키의 메타지식』 (조주관 지음, 우물이있는집, 2017년 7월 1일 출간)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소설의 철학적 서문으로 평가되는 《지하로부터의 수기》에 대한 해석서이다. 이 책은 ‘지식에 대한 지식을 통해 기존의 지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함과 동시에 글쓰기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한 도스토옙스키의 창작세계를 밝히는 책’이자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 담론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대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2. 『코뮤니스트 후기』 (보리스 그로이스 지음, 김수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년 11월 10일 출간)

철학자이자 예술비평가 보리스 그로이스의 ‘소비에트 공산주의’에 대한 도발적인 해석을 담은 책이다. 그로이스는 철학과 언어가 지배했던 스탈린주의적 사회야말로 공산주의적 세계였다고 단언하며, 결코 사면될 수 없는 사악한 음모적 정치가로 여겨져 온 스탈린을 진정한 공산주의 철학자로 구원해낸다.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하기 힘든 주장을 펼치며 우리의 상식과 합의를 깨뜨리는



### 4. 『다시 돌아보는 러시아 혁명 100년 1, 2』 (노경덕, 류한수, 박노자, 박영균, 심광현, 이진경, 장한뇨, 정재원, 최진석, 한정숙, 김민아, 김성일, 김수환, 김정희, 손유경, 송은지, 박종소, 박혜경, 이병훈, 이장욱, 차지원 지음, 문학과 지성사, 2017년 10월 24일 출간)

그동안 러시아 혁명은 냉전 이데올로기에 좌우되어 도식적인 해석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고, 소련이 해체된 후로는 혁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조소와 냉소의 대상이 되었다. 금융위기와 그 세계적 파장의 장기화로 인해 또다시 대대적인 역사적 이행기로 접어들고 있는 2017년 현재,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옛 시절을 찬미하거나 역사적으로 화석화하여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달랐던 조건과 차이 속에서 혁명적 사건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재적 지형으로 끌어오는 것이다. 『다시 돌아보는 러시아 혁명 100년』은 오늘날의 시점에서 러시아 혁명기 당대를 새롭게 다르게 조망하고자 했다.



5. 『레닌묘: 상징의 건축 기억의 정치』 (김상현 지음, 민속원, 2017년 7월 20일 출간)

레닌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의 정중앙에 위치한 여러 역사문화 유산들 가운데에서도 지리적, 정치적, 건축학적, 신화적,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공간이다. 레닌묘는 레닌이라고 하는 한 역사적 인물의 위대함과 국가적 영웅에 대한 개인숭배의 이데올로기적 기초를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에 시각적으로 재현한 역사 유산이다. 본 연구서는 레닌묘 인근의 크렘린궁, 붉은광장, 성 바실리사원 등의 환경과 공간상의 위치를 러시아 정교회의 건축술과 서양의 지오메트리, 동양의 풍수지리적 관점에서 고찰한 국내외 최초의 연구 성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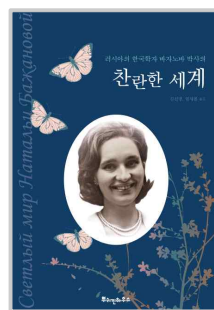


6. 『러시아 문화의 풍경들』 (김상현 지음,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7년 11월 10일 출간)

혁명이 있기 전 러시아 문화를 구성하는 것들의 옛센스를 찾아 나선다. 우리는 러시아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러시아적이다’라는 어휘

속에는 노동애, 조국애, 선(善)의 추구, 동정심, 관용, 양심,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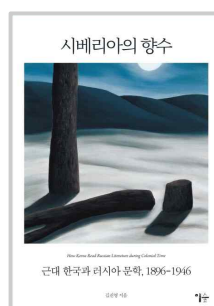
인의 자유, 비검함에 대한 증오, 극단적인 몰입, 적대 세력에 대한 증오 등과 같은 인간의 복잡한 성정이 다양한 모습으로 녹아들어 있다. 이 책에서 필자는 이를 ‘러시아성’이라 호명한 뒤, 익히 알려진 러시아 문학의 두 걸작—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과 투르게네프의 《사냥꾼의 수기》를 꼼꼼히 읽어 내려가면서 가장 러시아적인 것들의 정수를 발굴하고 해석해 나간다.



7. 『러시아의 한국학자 바자노바 박사의 찬란한 세계』 (편집부 지음, 김선명, 엄세복 율집, 뿌쉬킨하우스, 2017년 11월 14일 출간)

2014년 세상을 떠난 러시아의 한국학자 나탈리아 바자노바 박사를 추모하는 책이다. 바자노바 박사는 소

련 시절 최고의 북한 전문가로서 러시아 개혁 개방 시기를 맞아 한러수교의 물꼬를 트는 데 일조하였고, 수교 이후에는 10여 년에 걸쳐 한국 언론에 특별 기고를 하며 남북러 관계를 비롯한 여러 연구로 명실공히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이 책을 통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및 입장을 소련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시적으로 일별할 수 있으며, 한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보여준 나탈리아 바자노바 박사의 삶을 엿볼 수 있다.



8. 『시베리아의 향수 근대 한국과 러시아 문학, 1896-1946』 (김진영 지음, 이숲, 2017년 10월 31일 출간)

20세기 초 러시아 문학이 한국 사회와 문화에 끼친 영향을 연구해온 학자가 방대한 기록을 참고하고 분석과 성찰을 거듭하여 완성한 책이

다. 이 책은 1896년 조선왕조 사절단의 첫 러시아 여행에서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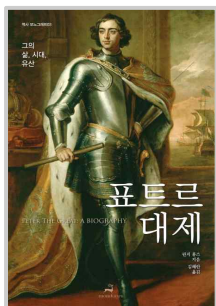
터 1946년 이태준의 첫 소련 여행에 이르는 50년간 러시아 문학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번역되고 읽혔는지, 또 러시아/소비에트 러시아의 표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본다. 러시아 문학의 독법과 수용사가 곧 20세기 초 한국의 사회문화사를 형성했다는 것이 이 책의 기본적인 주장인데, 러시아 작가들과 그들을 토대로 당대의 문학을 확립한 ‘문화번역자들’의 비교가 그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9. 『여행 가방』 (세르게이 도블라토프 지음, 김현정 옮김, 지식출판사 지식, 2017년 12월 19일 출간)**

러시아 현대 문학의 대표 작가로서 뛰어난 예술성과 대중성으로 인정 받은 세르게이 도블라토프의 작품

이다. 주인공 ‘도블라토프’는 미국으로 이민 후 잊고 지냈던 여행 가방을 우연히 발견하고 들어 있는 물건 하나하나에서 추억을 떠올리기 시작한다. 각각의 일화는 소비에트 러시아 사회의 부정적인 단면을 보여 주고 작가는 이를 유머로 승화시킨다. 역자는 작가의 느낌과 스타일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구어체 문체로 번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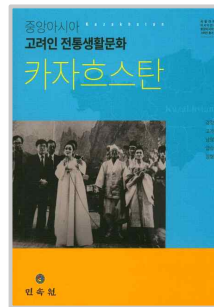


**10. 『포트르 대제 그의 삶, 시대, 유산』 (린지 휴스 지음, 김혜란 옮김, 모노그래프, 2017년 9월 30일 출간)**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이자 나후한 러시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개혁가 포트르 대제의 기이한 삶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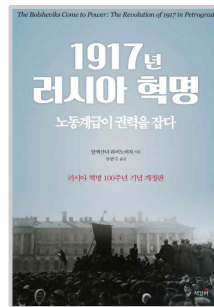
그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그의 사후 평가까지 포함한, 명실상부한 포트르 대제의 본격 평전. 이 책은 전제 군주로서 포트르가 공적으로 쌓은 정치적·군사적·문화적 업적을 담담하게 서술하면서도, 포트르 개인의 행동·생각·취미·교우관계·재산·여자관계 등 포트르의 독특한 개성에도 초점을 맞춘다. 특히, 난쟁이·

변장·광대·반달리즘·전쟁놀이·건축·조선술·해부학 등 그의 다양한 관심사와 기이한 성격까지 세세하게 묘사하여 인간 포트르의 실제 모습을 느낄 수 있게 한다.



**11.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 : 카자흐스탄』 (강정원, 고가영, 남영호, 양승조, 정형호 지음, 민속원, 2017년 8월 18일 출간)**

중앙아시아 고려인 전통생활문화를 다룬 이론서로서 카자흐스탄에 거주한 고려인들의 생활문화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12. 『1917년 러시아 혁명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다』 (알렉산더 라비노비치 지음, 류한수 옮김, 책갈피, 2017년 7월 27일 출간)**

올해 러시아 혁명 100주년을 맞아, 러시아 혁명사 연구의 거장 알렉산더 라비노비치의 1976년 저작 The

Bolsheviks Come to Power: The Revolution of 1917 in Petrograd가 개정돼 미국·한국 등지에서 재출간됐다. 본디 러시아 혁명을 소수의 쿠데타로 보는 보수적 견해의 소유자였던 라비노비치는 엄정한 학술 연구를 통해 볼셰비키가 당시 대중의 커다란 지지를 받았고, 따라서 10월혁명도 진정한 대중 혁명이었다는 결론을 내린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다》는 주로 1917년 7월 봉기부터 10월혁명까지를 상세히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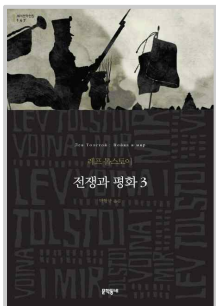
13. 『발트해 바이킹의 바다, 북유럽의 숨겨진 보석』 (김용희, 류한수, 민혜련, 박병률, 박지배, 이기준, 주강현, 조용준, 황수연 지음, 바다 위의정원, 2017년 10월 10일 출간)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 『발트해』. 한자동맹의 자취, 호박루트, 러시아 혁명 100주년, 중세도시의 변신, 해양박물관, 신화와 도자기와 청어 그리고 크루즈까지 발트해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담고 있다.



14. 『가면무도회』 (미하일 레르몬토프 지음, 박선진 옮김, 지식출판, 2017년 10월 23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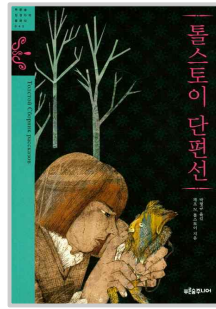
과거에 도박꾼으로 이름을 날리던 아르베닌은 지금의 아내 니나를 만나 도박계를 떠났다. 하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유혹에 끊임 없이 흔들린다. 그때 다른 남자가 아내의 팔찌를 하고 있는 걸 본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아르베닌은 질투에 사로잡혀 복수를 준비한다.



15. 『전쟁과 평화 3.4』 (레프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문학동네, 2017년 9월 20일, 11월 24일 출간)

삶의 의미와 인간의 도덕적 완성에 대한 끝없는 질문과 대답으로 인류에 커다란 지혜를 상속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가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145~148번, 전4권으로 완간되었다. 1970년 『전쟁과 평화』의 첫 번역을 선보였던 국내 러시아문학 연구의 선구자

박형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미려하고 충실한 번역에 또 한번의 엄정한 원전 확인을 거치며 새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고 시대의 감각을 불어넣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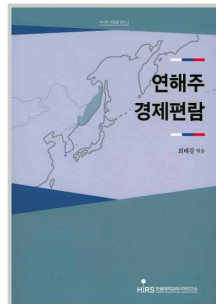
16. 『톨스토이 단편선』 (레프 N. 톨스토이 지음, 박형규 옮김, 푸른숲주니어, 2017년 11월 27일 출간)

새롭게 태어난 톨스토이 문학의 완결판 『톨스토이 단편선』.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전집을 비롯해서 이미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출간되어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민중 문학이 온전하게 번역된 예는 아직까지 없었다. 그만큼 톨스토이의 민중 문학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말로 옮겨 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학자나 역자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러시아 문학, 그 중에서도 톨스토이 문학을 수십 년 동안 외곬으로 연구한 고려대 박형규 명예 교수가 번역을 맡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를 가진다.



17. 『아름다운 폭군』 (니콜라이 예브레이노프 지음, 안지영 옮김, 지식출판, 2017년 11월 13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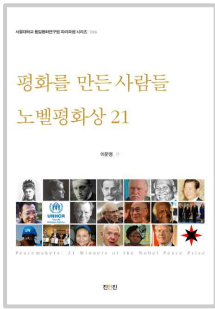
출판사에서 서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8. 『연해주 경제편람』 (최태강(위원장), 원석범, 이정완, 이용권, 미하일 홀로샤, 도경식 지음, 한림대학교 러시아연구소, 2017년 11월 30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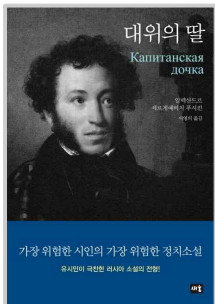
출판사에서 서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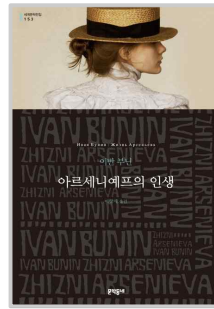
19. 『평화를 만든 사람들: 노벨평화상 21』, 이문영 지음, 진인진, 2017년 12월 5일 출간)

『평화를 만든 사람들 : 노벨평화상 21』은 노벨상의 탄생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세한 역사적 사실들을 소개하면서, 노벨상이 평화학의 탄생과 발전에 기여하여 현재 세계평화 문화의 확산에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과정을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개된 21명의 수상자들은 성별, 인종, 지역, 분야, 지명도, 전문적 집필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선별되었는데, 특히 노벨상의 유명한 한계로 지적받고 있는 ‘백인 남성 서구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람을 택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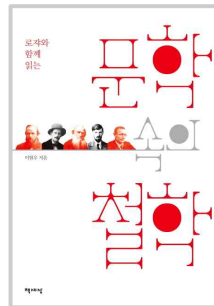
20. 『대위의 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 지음, 이영의 옮김, 새움, 2017년 7월 17일 출간)

『대위의 딸』은 19세기 초에 나온 소설이지만, 요즘 러시아의 젊은이들도 시대의 격차를 느끼지 않고 술술 읽어나갈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인 언어감각으로 쓰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이유는 푸시킨이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쓰고 말하는 언어를 작품 속에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투르게네프는 “푸시킨 이후의 작가들은 그가 개척한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고골,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모두 푸시킨을 위대한 작가이자 가장 존경하는 작가로 손꼽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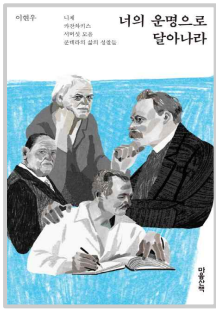
21. 『아르세니예프의 인생』 (이반 부닌 지음, 이향재 옮김, 문학동네, 2017년 7월 7일 출간)

러시아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이반 부닌의 대표작 『아르세니예프의 인생』이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 153번으로 출간되었다. 작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책’이라 했으나 ‘예술적 전기’라 불리며 종종 톨스토이, 악사코프, 고리키의 자전적 3부작과 비견된다. 타고난 서정 시인 이반 부닌이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 명멸하는 기억의 편린들을 과장 없이 그려낸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이나 갈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통적 의미의 소설이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를 끊임없이 넘나들며 삶과 사랑, 죽음과 존재에 대해 고찰하는 한 편의 철학적·미학적 에세이에 가깝다.



22. 『로자와 함께 읽는 문학 속의 철학』 (이현우 지음, 책세상, 2017년 12월 5일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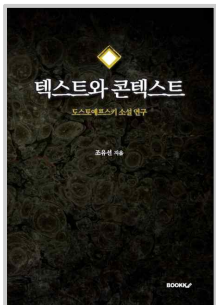
전공인 러시아 문학을 비롯해 세계 문학 깊이 읽기 강의를 꾸준히 열어온 서평가 ‘로자’ 이현우. 기존의 문학 작품 해석에서는 간과되곤 했던 세부와 이면에 주목하는 한편, 색다른 시선으로 본질을 꿰뚫으며 참신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의 강의는 많은 이들의 호응과 공감을 자아냈다. 『문학 속의 철학』은 그가 2015년 10~11월에 진행한 ‘문학 속의 철학 읽기’ 강의를 보완해 엮은 것으로, 문학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철학적 주제들을 찾아 논하는 가운데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23.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 (이현우 지음, 마음산책, 2017년 8월 5일 출간)

‘로자’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이현우의 독특한 문학 가이드 『너의 운명으로 달아나라』. 철학에서 역사, 과학, 문학까지 거의 모든 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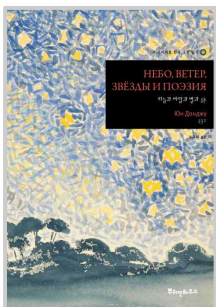
읽어주는 로자가 새로운 독서법을 소개한다. 수없이 쏟아지는 세계 문학 사이에서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망설이는 이들을 위해 니체에게 감명 받아 자신의 삶을 뜨겁게 성찰한 작가들과 그들의 대표작을 함께 읽어본다.



24. 『텍스트와 콘텍스트』 (조유선 지음, 부크크, 2017년 11월 1일 출간)

이 책은 ‘텍스트와 콘텍스트’라는 큰 틀에서 19세기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 텍스트가 다양한 콘텍스트 내에서 의미화 되는 과정에 주목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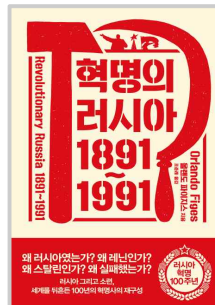
연구의 결과이다. ‘거대한 소설적 우주’를 구현했다고 평가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은 텍스트와 콘텍스트가 교차가 만들어진 다층적 담화구조의 최고봉에 놓여있으며, 21세기 콘텍스트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재해석의 대상이다.



25.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지음, 조주관 옮김, 뿌리깊이하우스, 2017년 12월 9일 출간)

<러시아어로 한국 고전 읽기 시리즈> 제2권. 2017년 윤동주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윤동주 시인의 시와 산문 총 123편을 러시아어로 완역하여 실었다. 이 책은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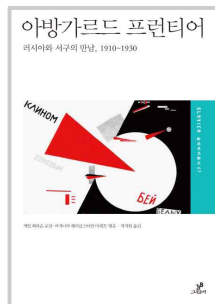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1부와 2부에는 시의 창작 년도에 따라 각각 1934~1937년 사이의 시와 1938~1942년 사이의 시를 실었다. 3부에는 미완성, 삭제 시편을, 4부에는 산문을 실었다. 또한 시인 윤동주의 생애와 연보도 함께 수록되어 있어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의 러시아어 번역은 토르폴 2급 수준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26. 『혁명의 러시아 1891~1991』 (올렌도 파이저스 지음, 조준래 옮김, 어크로스, 2017년 11월 7일 출간)

혁명의 관점으로 읽는 러시아 근현대사이자 소련의 역사 『혁명의 러시아 1891~1991』. 러시아 현대사의

권위자인 런던대학교 버벡 칼리지의 올렌도 파이저스 교수가 평범한 시민이 러시아 혁명에 관해 접근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 보다는 사건의 전개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인 책을 펴내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제정 러시아 말기에서부터 소비에트 연방의 몰락까지 러시아 혁명을 100년 동안 장기 지속된 하나의 사이클로 서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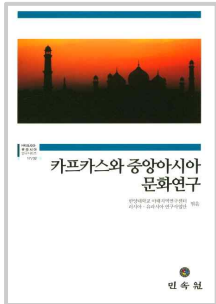


27. 『아방가르드 프런티어』 (게일 헤리스 로먼, 버지니아 헤이글스타인 마쿼트 지음, 차지원 옮김, 그린비, 2017년 8월 30일 출간)

‘세기말’ 유럽을 지배하던 종말론적 염세와 회의의 분위기와 더불어 나

타났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 낙관적 유토피아주의는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통해 가장 전면적으로 표현되었다.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보려 했던 러시아의 열망을 누구보다도 앞서 실현하고자 했다. 『아방가르드 프런티어 : 러시아와 서구의 만남, 1910~1930』은 사회주의 소비에트 러시아가 시작된 엄청난 격변기에 나타난 러시아 아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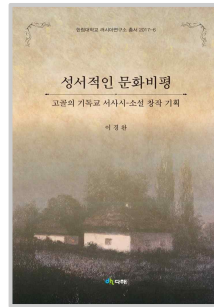
가르드 예술가들의 지적, 실천적 작업에 관하여, 그리고 서구에서 나타난 반향과 상호작용을 다루는 혼치 않은 책이다.



**28.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문화연구』**(김보라, 김성일, 박영은, 서광진, 신보람, 심지은, 이명현, 임혜영, 조규연 지음, 민속원, 2017년 8월 20일 출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시리즈’ 중 한 권.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부 - 러시아 문학의 프리즘으로 본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문화, 제2부 - 러시아 격변의 시기와 교착된 카프카스의 예술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조지아, 제3부 - 중앙아시아 언어·문학·문화에 투영된 민족 정체성 언어 상황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요소.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HK 러시아-유라시아 연구 시리즈’ 중 한 권. 모두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제1부 - 러시아 문학의 프리즘으로 본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 문화, 제2부 - 러시아 격변의 시기와 교착된 카프카스의 예술 문화적 공간으로서의 조지아, 제3부 - 중앙아시아 언어·문학·문화에 투영된 민족 정체성 언어 상황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요소.



**29. 『성서적인 문화비평 - 고골의 기독교 서사시-소설 창작 기획』**(이경완 지음, 다해, 2017년 12월 출간)

이 책은 고골의 삶과 작품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서구와 우크라이나-러시아의 기독교 문화와 근대

문화를 성서적인 시각에서 고찰하고 고골의 기독교 서사시-소설 창작 기획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고골의 삶과 작품세계에는 바로크 종말론과 정교의 부정신학이 깊이 반영되어 있고, 그의 작품세계는 서구와 러시아의 기독교 서사시 전통에 자리매김 될 수 있으며, 고골이 실패한 기획이 성서적인 원칙에 따라서 창조적으로 계승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 공지사항

### ▶ 한국러시아문학회 15기 회장단 선출

한국러시아문학회 15대 회장에 서상범 회원(부산외대)이 선출되었습니다. 부회장으로는 변현태 회원(서울대)과 김진규 회원(고려대)이 선출되었습니다.

### ▶ 『러시아어문학논집』 제60집 투고 안내

2018년 2월 25일 발간예정인 『러시아어문학논집』 제60집의 제출 마감일은 2018년 1월 15일입니다. 발간 후 회비를 납부한

회원님들께 발송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어문학논집』에 게재할 원고를 보내실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 1402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37번길 22 안양대학교  
러시아어과 이기주 교수 연구실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편집부  
rusistika@hanmail.net 계좌번호: 농협 302-3720-9266-81 이기주

## 회비납부

### ▶ 회비 납부 현황

2017년 12월 31일 현재 학회비 납부 현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비를 납부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내주신 학회비는 엄격하고 꼼꼼하게 관리되어 학회 사업에 사용될 것입니다. 혹시 회비 납부를 하였으나 아래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 주십시오.

###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16~2017)

이규환 회장 2,000,000원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정명자 전 회장 1,000,000원

문석우 전 회장 1,000,000원

최 선 전 회장 3,000,000원

\* 특별회비를 후원해 주신 이규환, 조주관, 정명자, 최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특별회비는 학회발전을 위해 요긴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 특별회비 출연해 주신 분 (2009~)

이강은 전 회장 2,000,000원 (2015)

조주관 전 회장 2,000,000원 (2015)

경북대 토대사업팀(연구책임자 김정일) 500,000원 (2015)

전명선 전 회장 1,000,000원 (2014)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4)

변현태 전 부회장 1,000,000원 (2014)

김정일 부회장 1,000,000원 (2014)

조주관 전 회장 500,000원 (2013)

백용식 전 회장 1,000,000원 (2012)

석영중 전 회장 1,000,000원 (2011)

열린책들 2,900,000원 (2010)

최성호 전 회장 1,000,000원 (2009)

###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주신 분(2017년 12월 31일 현재)

심성보(50만 원), 윤영순(50만 원), 이명현(30만 원), 이항재(50만 원) (이상 4인)

\* 평생회비 한 번 더 내기 캠페인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 평생회비 완납(1997년~2017년 12월 31일 현재)

고영랑, 권경준, 김경태, 김규중, 김선명, 김선안, 김세일, 김용화, 김정아, 김정일, 김진규, 김진영, 김철균, 김혜란, 김희숙, 문석우, 박선영, 박재만, 박종소, 박현섭, 박현아, 박형규, 박혜경, 박혜옥, 백경희, 백승무, 백용식, 백준현, 변현태, 서상범, 석영중, 송인필, 심민자, 심성보, 심지은, 안병용, 안병팔, 안혁, 오원교, 오종우, 유승만, 윤영순, 이강은, 이규환, 이기웅, 이기주, 이남경, 이대우, 이득재, 이명현, 이영의, 이장욱, 이재혁, 이준형, 이지연, 이항재, 이현숙, 이형숙, 전명선, 전병국, 전정옥, 전지용, 정명자, 정보라, 조미경, 조유선, 조주관, 조혜경, 차지원, 천호강, 최건영, 최병근, 최선, 최성호, 최정현, 최종술, 최진식, 최진희, 한예경, 허승철, 허효영, 홍대화, 홍순미, 홍지인 (이상 84인)

#### ▲ 평생회비 부분납(2017년 12월 31일 현재)

김민아, 민경현, 서선정, 윤새라, 이수현(이상 10만 원), 김홍중, 김태욱, 정영주, 홍택규(이상 15만 원), 안지영(20만 원), 김상현(25만 원) (이상 11인)

#### ▲ 연회비 납부(2017년 12월 31일 현재)

길윤미, 김연경, 신동혁, 임수영, 임혜영 (이상 5인)  
(4월 15일에 납부해주신 분의 성함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4월 15일에 연회비를 납부하신 분께서는 [karusist@naver.com](mailto:karusist@naver.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도 회비 납부 안내

2018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 입회비는 2만원이며, 정회원의 연회비 및 평생회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평생회비는 3회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 전임교원 연회비: 5만원

▲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 전임교원 평생회비: 50만원

▲ 비전임교원 평생회비: 30만원

\* 입금하실 때에는 반드시 성함과 입금 내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연회비, 홍길동평생회비)

## 한 국 러 시 아 문 학 회

КОРЕЙСКАЯ АССОЦИАЦИЯ РУСИСТОВ  
KOREAN ASSOCIATION OF RUSISTS

02856 서울시 성북구 인촌로 108 고려대학교 청산MK문화관 503호 러시아CIS연구소 내 한국러시아문학회 사무국

TEL: 02) 3290-1641 학회 홈페이지: [www.russian.or.kr](http://www.russian.or.kr)